

유카쿠테이

야시마 호쿠레이(북쪽 꼭대기 지역)에 있는 ‘유카쿠테이’(“학이 노니는 정자”)라는 전망대는 ‘시시노레이간’ ‘단코레이’와 더불어 야시마의 세 전망대 가운데 하나입니다. 유카쿠테이에서는 세토 내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.

전망대에서는 세토 내해의 유명한 섬들이 많이 보입니다. 정면에는 오시마 섬, 데시마 섬, 쇼도시마 섬, 왼쪽에는 ‘쌍둥이 섬’인 오기지마 섬과 메기지마 섬, 그 너머로는 예술의 섬으로서 유명하며 미술관과 야외 설치 미술이 곳곳에 있는 나오히마 섬이 보입니다. 이 섬들은 야시마를 포함하는 세토 내해 국립공원에 속해 있습니다. 야시마가 다른 섬들과 가깝기 때문에 세토 내해 관광의 이상적인 출발점입니다.

전망대는 둥글고 흰 지붕을 가운데의 큰 기둥이 받치고 있어서 모더니즘이 느껴집니다. 기둥 밑에는 원형 벤치가 놓여 있습니다. 이 구조는 경관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

유카쿠테이는 난레이에 있는 방문객용 주차장에서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. 또한 섬의 북쪽 끝인 나가사키노하나 곶 가까이에 있는 산책로에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. 산책로의 일부에는 줄가시나무가 심어져 있어 캐노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.